

# 중국불교의 참법(懺法)에 대한 소고(小考)

이 성 운\_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목 차

- I. 서언(緒言)
- II. 참법(懺法)의 수용(收容)
- III. 참법(懺法)의 전개(展開)
- IV. 결어(結語)

## 〈국문초록〉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래 경전에 근거하여 입장을 참회하는 ‘참법(懺法)’이 발달하였다. 중국불교에서 참법이 발달하게 된 배경은 유가나 도교의 문화와 상호 교섭하며 ‘예’의 중시, 귀신관념, 효도사상, 국가 관념 등과 같은 중국의 관념이 흡수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글에서는 참법이 중국불교에 어떻게 수용·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중국불교에 참법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참문(懺文)이 중심이었지만 점차 불명(佛名)에 예를 표하는 참법이 등장한다. 불명을 칭명함으로써 어려움과 환난, 병을 없애거나 갖가지 공덕을 얻고자 한 것이다. 『자비도량참법』을 필두로 신행선사의 『칠계예참』, 천태지의(天台智顚)의 『법화삼매참의』·『청관세음참법』·『방등참법』·『금광명참법』이 등장하며 참법의 전성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종밀의 『원각경도량수증의』를 비롯하여 『화엄보현행원수증의』·『자비삼매수참(慈悲三昧水懺)』·『천수안대비심주행법』·『예념미타도량참법』 등 각 종파는 자종의 종지에 걸맞은 참법을 생성하여 실천하였다. 중국불교 주요 참법에 등장하는 참회·권청·수회·회향·발원의 오회(五悔)가 성립된 것은 지의(智顚)의 『마하지관』과 『법화삼매참의』에 이르러서이고, 그 행법은 첫 번째 행자가 도량을 깨끗이 하는 법을 비롯해 열 번째 좌선으로 실상을 바르게 관하는 방법의 10법으로 구성되었다.

핵심어: 참법, 『법화삼매참의』, 오회(五悔), 천태지의, 종밀(宗密)

## I. 서언(緒言)

신심(身心)으로 지은 악한 업(業)은 정도(正道)를 덮고 가로막게 된다. 그것을 소멸하는 과정에 대해 일정한 법식을 성립하는 것을 작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악업으로 인한 장애를 참회하여 소멸하는 과정의 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불교의 참법을 간략히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참회(懺悔)란 ‘과거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쳐 고치는 것, 과거의 죄악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말하는 것, 신불(神佛)에 이를 고하는 것’<sup>1)</sup> 등의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 같은 참회가 불교에서 하나의 의식작법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원초적인 형태는 ‘포살’과 ‘자자’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참회는 ‘참’과 ‘회’로 나누어, ‘참’은 인도 원어 ‘kṣāma’의 음사어로서 ‘죄를 용서하여 받아주기를 다른 이에게 청하는 것’이고, ‘회’는 ‘āpatti-prati-deśana’로서 추회(追悔)·회과(悔過)의 의미로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사죄함으로써 멸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해서 참과 회로 분류되는 참회에는 남에게 사죄하는 것과 자기의 죄에 대해 개회한다는 두 가지 뜻의 용어이므로 그러한 의미에 맞춰 타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sup>4)</sup>

결국 참회는 신불 등 타자에게 선행된 악업을 고백하여 사죄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는 것으로써 악업을 소멸하는 것이다. 또 초기불교 이래의 포살과 자자의 참회방식에서 나아가 새롭게 성립된 참회하는 방식을 참법(懺法)이라 하며, 참법의 발달이 중국불

1) 新村出 編, 『廣辭苑』.

2) 李光濬, 『佛敎의 懺悔思想史』, 우리출판사, 2006, p.24.

3) 위의 책, p.25.

4) 山口益, 『懺悔について』, 『佛敎學セミナー』第9號(大谷大學), pp.2~3. 參照.

교의 특징이라고 언급된다. 중국불교에서 참법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유불도의 문화가 상호교섭하며 '예'의 중시, 귀신관념, 효도사상, 국가관념 등의 영향이라고 언급되고 있다.<sup>5)</sup>

해서 이 글에서는 중국불교의 참법이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중국불교에서 전개된 각 참법의 특징과 그 의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불교의 참법에 대한 연구는 『중국불교참법연구』 '중국불교참법연구사적회고(中國佛教懺法研究史的回顧)'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927년 『삼계교연구(三階教研究)』를 필두로 1935년의 『당대불교의례(唐代佛教儀禮)』, 1959년의 『참법적성립여지의적입장(懺法的成立與智顛的立場)』, 1961년 좌등철영(左藤哲)이 천태대사의 역작인 『법화삼매참의』와 『방등삼매작법』·『청관세음참법』 등에 대해 연구한 『천태대사연구』 등을 위시하여 2000년 『천태참법지연구(天台懺法之研究)』에 이르기까지의 중국불교 참법에 대한 연구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sup>6)</sup> 이후의 중국불교 참법연구는 진가정(陳佳政)의 『참법, 자비여불교 중국화-이 '양황참' 위중심(懺法, 慈悲與佛教中國化-以 '梁皇懺' 爲中心)』<sup>7)</sup>에 수편이 소개되어 있고,<sup>8)</sup> 또 『중국불교의례제도(中國佛教儀軌制度)』에 실린 임자청(林子靑)의 '참법'에는 중국불교 참법에 대해 개설되어 있다. 이광준은 『불교의 참회사상사』 5,6장에서 '중국에서의 참법의 수용과 발전'과 '중국에서의 참법의 전개'를 다루고 있는데,

5) 聖凱法師, 『中國佛教懺法研究』,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4, pp.388~395.

6) 위의 책, pp.1~10.

7) 陳佳政, 『懺法, 慈悲與佛教中國化-以《梁皇懺》爲中心』,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p.5.

8) 劉亞明, 『中國漢傳佛教懺悔思想研究』, 四川大學宗教學博士學位論文, 2005.; 呂方芳, 『智顛懺法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楊陽, 『華嚴懺法的創建』, 『忻州師範大學學報』, 2012.; 劉永增·陳菊霞, 『莫高窟第98窟是一懺法道場』, 『敦煌研究』 6, 2012.; 韓成才, 『地藏懺法研究現狀及問題』, 『蘭台世界』, 2016.

이 글은 이 편제에 크게 신세지고 있음을 밝힌다.

## Ⅱ. 참법(懺法)의 수용(收容)

중국에 불교가 수용되어 초기의 한·위(漢魏) 이래 참법을 숭상하였다<sup>9)</sup>고도 하지만 진대(晉代)에서 기원하여 남북조의 제·양(齊梁)시대에<sup>10)</sup> 점차 성행하다가, 수·당대에 크게 유행하였다.<sup>11)</sup>

중국불교에 참법이 수용된 것은 종교의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불교 전래 초기 서역의 외래승려에 의해 제시된 기우(祈雨)·영험(靈驗)·기서(奇瑞) 등의 신이도술(神異道術)에 의해 불교에 활용되던 것이 점차 보살계의 전래나 공덕을 역설하는 경전의 출현, 주술적 경전의 전역에 의해 의식 수법의 형태로 옮겨갔다<sup>12)</sup>는 것이다.

### 1. 경전의 불명 예참

초기불교의 참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살이나 안거를 끝내고 행하는 자자와 달리 중국불교에서 발달한 참회 방법은, 여러 경전에 의해 설해진 죄과를 참회하는 의례 및 그 의식(참법예참)이라고 할 수 있다. 참법과 예참은 율에 있어서의 대인참회가 아니라, 유가계 등에서 볼 수 있는 자참(自懺)이고 그 내용은 제불을 향하여 행하는 죄과발

9) 「圓覺經道場略本修證儀」卷1(『卍新纂續藏經』74, 512下).

10)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2, 上海: 知識出版社, 1982[1989], p.388.

11) 「廣弘明集」卷28(『大正藏』52, 330中).

12) 橫超慧日, 『中國佛教の研究』, 法藏館, 1958, p.326 이하 참조. 재인용.

로이다. 발로참회의 특징은 불전참회로서 부처님을 청해 모시고 행하는 참회는 『사리불회과정』 등 여러 경전에서 보이고 있다.<sup>13)</sup>

『고승전』에 의하면 북위조에 귀의한 현고(玄高)가 태연 5년(439)에 북위 태조의 명으로 태자 황(晃)을 위해 『금광명참의(金光明懺儀)』를 만들었고,<sup>14)</sup> 남송(南宋)에서는 승포(僧旛, 425~518)가 ‘삼칠보현재참’을 행한 것<sup>15)</sup> 등이 참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sup>16)</sup> 예참에 관한 경전을 바탕으로 <청관음참법>, <금광명참법>, <방등참법> 및 『국청백록』의 <방등삼매참법>, <법화삼매참의> 등이 등장하고 있다.

참법이나 예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치병제재(治病除災) 등 현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의 경전이 많고, 그 방법으로 주송·예찬·참회 등이 있다. 그 행법을 보면 『청관세음경』의 경우 양지(楊枝)로 정수(淨水: 감로수)를 뿌리고 주문을 염송함으로써 인민의 대약병을 구제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령 불도징(310~348)은 석호의 아들인 빈(斌)을 취지주지(取枝呪之)에 의해 죽음으로부터 구해냈다고 하는데,<sup>17)</sup> 이 방법은 가장 고유한 행법의 하나로 한국불교 전통의례에까지 제시되고 있다.

<금광명참법>의 소의경전인 『금광명경』은 사천왕품 등의 사상에 입각해 후대 진호국가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참법 등에 나타나는 참회의식은 불명을 창하고 예배하며 자신의 죄과를 드러내 참회하게 해주는 예참으로 불보살의 가지에 의지하여 업장을 소멸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예참의 의식은 수당시대를

13) 李光濬, 앞의 책, p.171.

14) 『高僧傳』(『大正藏』 50, 397下).

15) 『高僧傳』(『大正藏』 50, 369中).

16) 李光濬, 앞의 책, p.172.

17) 『高僧傳』(『大正藏』 50, 384中).

거치면서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게 된다. 당대 이후에도 예찬(禮讚)[儀]·수증의(修證儀)·선요(禪要)·의궤(儀軌) 등의 의식에 예불 참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참의식에 대한 칭명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지승의 『집제경예참의』나 《만신찬속장경》 등의 ‘예참’이 널리 통용된다. 예참하는 참법의 목적은 대체로 양재(攘災)나 벽사(辟邪)에 관한 것, 기우(祈雨)에 관한 것, 치병(治病)에 관한 것, 연수(延壽)·소사(甦死)·면지옥고(免地獄苦)에 관한 것들이 있다.<sup>18)</sup>

예참의 참법 가운데 원전이 확인된 것으로는 『청관세음경』, 『대방 등다라니경』, 『관보현보살행법경』, 『법화경』, 『금광명경』, 『관허공장보살경』, 『미륵소문본원경』이 있고 또 율전에 의한 참회와 다른 오역사중죄도 참회에 의거하여 제거됨을 강조하는 경전으로 『사리불회과경』, 『문수사리보살회과경』, 『관불삼매해경』, 『보살오법참회문』,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미륵대성불경』, 『우바새오계위의경』 등의 대승참회경전은 중국불교 참법이 형성되는 과도기적인 경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 참문의 발달

참법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참문이 중심이었지만 점차 불명에 예를 표하는 참법이 등장한다.<sup>19)</sup> 양무제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보이는 『자비도량참법』에서 그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제불보살의 명칭을 칭명함으로써 업장이 소멸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는 불명경전에서 설하는 칭명에 의한 업장소멸을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출삼장기집』에 소개되고 있는 불명경전으로는 『제경보살명』,

18) 李光濬, 앞의 책, pp.175~176.

19) 『廣弘明集』卷28(『大正藏』52), 332~335.

『제경불명』, 『유칭시방불명득다복경』, 『삼천불명경』, 『삼십오불명경』, 『팔부불명경』, 『시방불명경』, 『현겁천불명경』, 『칭양백칠십불명경』, 『현겁오백불명경』, 『현재시방불명경』, 『과거제불명경』, 『천오백불명경』, 『삼천불명경』, 『오천칠백불명경』 등이 있다. 수(隋)대의 『중경목록』에는 『불명경』, 『천불인연경』, 『팔부불명경』, 『삼세삼겁불명경』, 『천불명』, 『현재천불명』, 『과거천불명』, 『당래성수겁천불명』, 『오백칠십불명』, 『동호불명』, 『보살명』, 『육보살명당송지경』 등의 불명경전이 등장하고 있다. ‘불명경’은 다불사상(多佛思想)에 의해 과거 ‘칠불 · 이십사불 · 삼십오불 · 오십삼불 · 천불’로 전개되었으며 이것이 불명 칭명의 예참으로 의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다불(多佛)의 명호를 칭명하는 예참의 유전(流傳)은 진대(晉代)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보이고, 남북조시대 말기로부터 수당시대에 걸쳐 성행하였다고 보이는데,<sup>21)</sup> 독송함으로써 어려움과 환난, 병을 없애거나 갖가지 공덕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3. 참법의 등장

참법의 효시라고 불리며 10법으로 구성된 『자비도량참법』에는 불명경전에서 인용되었다고 보이는 ‘나무미륵불’에서 시작하여 ‘나무관세음보살’로 종결되는 불명들을 칭명하고 있다. 또 참회법을 삼매(三昧)·실상정관(實相正觀)과 연결 지어 사중삼매로 재조직한 천태의 참법에도 이 같은 예불의 형식은 이어지고 있지만 예경의 형식은 동일하다고 하기는 어렵다.<sup>22)</sup> 왜냐하면 천태의 참법은 제불을 소칭

20) 李光濬, 앞의 책, pp.179~182.

21) 『高僧傳』(『大正藏』50, 417下).

22) 李光濬, 앞의 책, p.187.

하고 소청한 제불께 예경하는 형식이며, 『자비도량참법』은 삼정례의 예경이 있다고 하지만 미륵불과 관세음보살의 ‘자’와 ‘비’의 상징 불보살을 처음과 끝에 칭명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삼계교의 〈칠계예참〉이나 신행 선사가 찬한 돈황 단간본 〈예불참회문〉을 보면, 다양한 대승경전의 불명을 칭명하거나 탄불계송이 활용되고 있고, 또 논서나 참의의 계송과 표백문을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수당에 걸친 일반 민중의 요구에 합치했다는 증거도 된다.<sup>23)</sup>

대승경전의 사중오역죄도 참회를 함으로써 소멸할 수 있다는 참회사상은 중국불교에서 현세에는 안온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려운 일을 멀리 벗어날 수 있다는 예참의식의 발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참의 지나친 발달은 폐해가 언급될 정도에 이르는데, 수 개황연대 『점찰경』에 의거한 탐참법이 행해지고 자박법(自撲法)을 멸죄법이라고 하자 개황 13년에 금지령이 나오기도 한다.<sup>24)</sup>

사중오역의 중죄를 소멸하는 참회는 증광·의작(擬作)의 불명경전에서 빈번히 설해지고 있는데, 이는 인도 아사세 왕의 참회멸죄의 고사가 일반에게 널리 유포되고 있었던 데서도 볼 수 있다. 이 고사는 『대반열반경』이나 『관무량수경』에 의해 보급되었다.<sup>25)</sup>

#### 4. 5회사상의 확립

중국불교 주요 참법에 등장하는 참회·권청·수회·회향·발원의 오회(五悔)가 성립된 것은 천태의 『마하지관』과 『법화삼매참의』에 이

23) 위의 책, p.188.

24) 『歷代三寶記』(『大正藏』 49, 106下).

25) 鹽入良道, 「中國佛教における 禮懺と 佛教經典」, 『結城教授頌壽記念論文集』(大藏出版, 昭和 39), pp.584~586. 재인용.

르러서이다. 흔히 4회, 5회라고 불리는 이 참회법은 경론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용수의 『대지도론』 「수회회향품」에는 보살의 예불법으로 회과(悔過)·수회회향(隨喜回向)·권청(勸請)의 3종법이 제시되어 있고,<sup>26)</sup> 『대승삼취참회경』·『보살장경』·『대승삼취참회경』·『합부금광명경』·『십주비바사론』 등에는 참회·수회·권청·회향의 4회가 설해지고 있다.<sup>27)</sup>

천태지의 이전에도 보리 등이 역출한 『점찰경』이나 『보살오법참회문』에는 오회가 등장한다. 『자비도량참법』에 참회·발원·회향이 시설되고 있지만 지의에 이르러 5회 참법이 정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후대 사명 준식은 미타신앙을 바탕으로 한 『왕생정도참원의』에 5회를 활용하고 있다.

아무튼 중국불교 참법의 5회는 천태의 『마하지관』의 설명에 의지해야 하는데, 주야 6시에 5회의 참회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5회에 대해 간략히 보도록 하자. 참회는 지난 악함을 덮어 감춤이 없이 드러내어 다시 짓지 아니하는 것이고, 권청은 시방의 제불에게 일체 함식을 구제해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수회는 모든 선근을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이고, 회향은 가지고 있는 선근을 깨달음으로 돌리는 것이며, 발원은 앞의 네 가지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참회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 5. 이참과 사참

참회에는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이 있는데, 이참은 “참회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 실상을 염하면 중죄는 이슬이나 서리가 헤일

26) 『大智度論』(『大正藏』 25, 495中).

27) 李光濬, 앞의 책, p.190.

이 소제되듯이 사라진다.”<sup>28)</sup>라고 하는 언급처럼 상이 없는 실상을 염하여 능소의 취상을 없애는 참회법이다. 사참은 주야 6시에 삼업을 청정하게 한 다음 존상 앞에서 무시이래로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지은 오역십악 및 여타 일체의 잘못을 뜻에 따라 전부 드러낸 다음 다시는 감추어 덮어두지 아니하고, 이미 지은 죄는 소제해 줄 것을 청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결코 짓지 말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참법에는 이참과 사참에 더해 율장의 참회인 율참이 있으며, ‘제상(諸相)을 멸복(滅伏)’ 하는 공능이 있다. 대승의 이치는 깊이 때문에 다생의 죄를 멸하지만, 지상(地上)의 자리에서는 이관을 닦으며 업체를 소멸하지만 지전삼현(地前三賢, 십주·십행·십회향)의 자리에서는 이관을 닦아도 업을 멸하지 못한다고 하며, 소승에서도 정상인 이전에는 업을 멸하지 못하며 이미 일체 업장을 끊었다고 해도 과거에 지은 업의 과보는 받는다고 한다. 업보는 악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선을 행하면 삼선도에 들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선이 복은 되지만 성도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선행도 고제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 해서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은 오히려 악취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sup>29)</sup>고 하는 것이다.

사참은 업을 행복시킨다고 하지만 주야 6시에 성심으로써 선을 행하여 악을 누르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행참(行懺)이나 예송(禮誦)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업은 현전하고 상속하므로 선악이 서로 적대하여 강이 나타났다면 약이 숨고 세를 빼앗는다고 하는 이치로 사참의 한계<sup>30)</sup>로 지적된다.

이참은 업을 태워 없애지만 악업의 세력이 강하면 이관(理觀)을 이

28)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大正藏』9, 393中). “若欲懺悔者端坐念實相衆罪如霜露慧日能消除.”

29) 徳田明本, 『律宗概論』, 百花苑, 昭和44, pp.321~322 참조. 재인용.

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참을 닦아야 하고, 선업의 세력이 강할 때는 오히려 성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참의 관으로써 이를 과하라고 한다. 이(理)는 공(空)하고, 집착하면 공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치하기에 힘쓰라는 것이다.<sup>31)</sup>

### 6. 3종 참법의 역할

참법에는 대체로 세 가지 참회법이 말해진다. 첫째는 작법참(作法懺)인데 ‘불전에서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몸과 입으로 지은 죄를 한 가지씩 법에 의해 소멸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는 취상참(取相懺)으로 ‘선정에 들어 죄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참회하되, 부처님께서 나타나 자신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서상(瑞相)을 관하고, 이에 의해 의업(意業)에 의한 번뇌의 죄, 즉 성죄를 소멸시켜 나가는 것’이다. 셋째는 무생참(無生懺)으로 ‘선정에 들어서 죄악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실상을 관하고, 수행에 장애가 되는 근본인 무명을 소멸시킴으로써 중도(中道)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작법참으로 삼악의 보장(報障)과 업장(業障)을 제거하고 견혹(見惑)과 사혹(思惑)을 항복시키며, 취상참으로 마음을 올곧게 하여 산란한 정죄를 멸하고 산선을 초래하여 인도의 보장과 업장을 멸한다. 무생참으로 혜죄(慧罪)를 제거하고 삼계유류의 보장과 업장을 근절시키며 무명번뇌를 멸한다.

작법참과 취상참은 조참(助懺), 무생참을 정참(正懺)으로 하여 동시에 닦아야 하는데, 무생의 정참이 없으면 참회는 외도의 무익한 고행과 같은 것이 되며, 무생의 정참을 홀로 닦는다 하더라도 잘 진행되

30) 위의 책, pp.322~323 참조. 재인용.

31) 李光濬, 앞의 책, pp.202~204.

어 가지 않으면 도에 장애가 되므로 조참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sup>32)</sup>

## 7. 기타 참회

또 정토교의 참회로는 선도의 왕생예찬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삼품 참회가 있다.<sup>33)</sup> 첫째 상품 참회는 신체의 모공과 눈에서 피를 흘리며 참회를 하는 것이고, 둘째 중품 참회는 모공에서 땀을 눈에서 피를 흘리며 참회하는 것이며, 셋째 하품 참회는 전신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말한다. 이 삼품 참회는 자신이 염불하는 힘이 아니라 여래의 본원력의 광대함을 믿고 염불하는 것으로 타력참회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또 『관보현보살행법경(觀普賢菩薩行法經)』에는 “국왕 대신이 참회하고자 하면 다섯 가지 참회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삼보를 비방하지 않으며 출가를 방해하지 않고 대승법을 지닌 이에게 공양하며, 반드시 예배하지 않더라도 심심한 경법과 제일의공을忆념해야 한다. 이 법을 생각하는 자를 찰리 거사의 제1참회라고 한다. 둘째는 부모와 스승에게 효도하고 봉양하며, 셋째는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샅된 길로 이끌지 않으며, 넷째는 육재일에 모든 경내에서 살생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섯째는 깊이 인과를 믿고 하나의 실다운 도를 믿어 붓다가 입멸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며 붓다는 말세에 이 참회법을 닦아 익히는 이들은 참회의 복을 입게 되어 재불이 보호하고 도와 멀지 않아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리라.”<sup>35)</sup>라고 설하고 있다.

32) 위의 책, pp.204~207.

33) 『往生禮讚偈』(『大正藏』 47, 447上).

34) 李光濬, 앞의 책, p.209.

35)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大正藏』 9, 394).

### Ⅲ. 참법(懺法)의 전개(展開)

앞에서 중국불교의 참법의 수용에 대해 간략히 고찰했다. 참회법이 불교의 주요한 행법이 되면서 당대에는 종파불교가 흥기한다. 각 종파는 독자적인 참회체계를 건립하여 고유의 특색 있는 참법을 형성하게 된다.<sup>36)</sup> 중국불교에서 참법의 전개는 참법의 수용에서 등장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를 확인해 보려면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이나 『만신찬속장경(卍新纂續藏經)』에 수록된 참법에 관한 저작들을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 『대정신수대장경』 45책과 46책에 소속된 참법에 관한 전적은 총 13부이고, 『만신찬속장경』 128, 129, 130책 ‘예참부’에는 36부가 실려 있다.<sup>37)</sup> 이와 같이 다양한 참법이 발달해 있지만 주요 참법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 1. 자비도량참법

『자비도량참법』<sup>38)</sup>은 중국의 남조(南朝) 제(齊)나라 무제(武帝) 영명(永明) 연간에(483~493), 문선왕(文宣王) 소자량(蕭子良)이 「정주자(淨住子)」 20권을 지어 〈정행법〉을 30가지로 나누었으나, 유통시키는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번고에 걸리고 말았다. 양(梁) 천감(天監, 502~519) 무렵, 덕을 갖춘 고승 보지(寶誌) 화상 등이 번잡한 것은 삭제하고 그 핵심들을 뽑아, 모든 경의 오묘한 말씀을 모아 10권의 참회문을 다시 편집하여 총 47장을 나열하였다. 먼저 육근삼업(六根三業)

36) 聖凱法師, 앞의 책, p.161.

37) 위의 책, p.387 注②. 第七十四冊 禮懺部에는 수록재의례까지 예참부로 분류하여 49편이 실려 있다.

38) 『慈悲道場懺法』(『大正藏』 45, 922~967).

에 귀의하여 의심을 끊고, 참회하여 원을 푼다. 나중에 육도사은(六道四恩)에 이르러, 예불보덕(禮佛報德)하고 회향발원을 한다. 그 중에 바로 얽힌 죄를 드러내어, 과거의 악인을 씻어내고, 다시 발보리심에 의거하여, 미래의 종지를 심는다. 양무제(梁武帝)가 지어 닦았으므로 속칭 〈양황공참(梁皇空懺)〉, 〈양황참〉이라고 한다. 송나라 때 청량산 사문 광균(廣均)이 7년에 걸쳐 대조하고 교정하여 상교정본(詳校正本)을 간행하였다. 먼저 안으로는 과거의 여섯 부처님과 석가모니부처님, 미래의 부처인 미륵보살에게 귀명(歸命)하고 죄업을 참회하며 드러낸다. 발원하며 여러 불보살을 믿고 받들며 예경함으로써 죄업을 소멸하고 복덕이 나게 하여 죽은 영혼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 〈양황보참〉을 〈자비도량참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자비’는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을 앞의 것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자(慈)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悲)는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을 말하며, ‘도량’은 도(道)를 닦는 곳을 말한다. 또 ‘자비도량참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된 데 대해 미륵보살이 양무제에게 꿈속에서 지시해 준 것이라거나 참문의 취지에 의거한 설 등이 다양하다.

〈자비도량참법〉의 참회문 중간 중간 불보살의 명호를 칭명하는데, 그 처음은 미륵보살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관세음보살로 끝을 맺는다. 이는 자씨(慈, Maitreya) 미륵보살과 비(悲, karuṇa)의 관세음보살에 의지하여 ‘자비’라고 칭명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본문 가운데 이 자비는 선법 중의 왕으로서 모든 중생이 귀의할 곳이니, 낮을 밝히는 해처럼 밤을 밝히는 달처럼 사람의 눈이 되고, 사람의 길잡이가 되며, 사람의 부모가 되고 사람의 형제가 되며, 함께 도량으로 돌아가는 참된 친구가 된다고 설하고 있다. 자비의 친애는 혈육보다도 타위 세세생생 함께하면서 죽더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으므로 이런 균등한 마음에 주목해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한다.

『자비도량참법』 10권은 3주설에 의하여 분과하거나 화엄의 십지사

상에 의해 분과하기도 한다. 3주설에 의하면, 1~2권은 1주의 상근기를 위한 것이고, 3~6권은 2주의 중근기를 위한 것이며, 7~10권은 3주의 하근기를 위해 편제한 것으로 분류한다.

## 2. 칠계에참

『자비도량참법』이 성립되는 시기에 많은 참문이 등장하는데, 이는 참법의 보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이후 6세기말 중국불교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참법으로 삼계교와 〈칠계에참〉, 〈천태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칠계에참〉은 삼계교의 근행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행선사(540~594)가 찬한 것으로 알려진 〈칠계야참〉의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일체의 상주삼보에 경례하고 붓다의 공덕을 찬탄한다. 『이십오불 명출불명경』의 붓다의 명호에 예경하며 칭명한다. 범패를 부르고 계송을 설하고 무상계송을 염하고 다시 시방불명에 귀명[나무]하고 참회를 한다. 그리고 아침예참문이 시설되는데, 비로자나불을 위시하여 성문연각현성승까지 경례하고, 자신만을 위해 예경하는 것이 아니라 천룡팔부와 제선신의 왕 등을 위해 상주삼보에 경례한다. 9회의 걸쳐 일체 존재들을 대신해 상주삼보에 경례하고 지심으로 시방의 무량한 붓다 앞에서 자신이 지은 업을 드러내 발로 참회함으로써 참회를 마친다. 참회를 마치고 권청하고, 수회하며, 회향하고 발원하는 5회 참회를 마치고 대중들에게 아침의 청정계송을 아뢰다. 청정계송은 육념으로, 불법승과 삼계라고 할 수 있는 ‘보시·지계·생천’의 삼계를 염하고 자삼귀의를 한다. 이어 일체 중생이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하여 스스로 마음을 맑히고 불교를 받들기를 발원하며 일체의 성현께 인사(和南)드리는 것으로 마친다.<sup>39)</sup>

〈칠계에참; 칠계불명예참〉은 『관약왕약상보살경』과 『결정비니경』,

〈삼십오불명예참문〉 등을 참조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보불경례를 주장하면서 과거칠불, 삼십오불, 오십삼불 등으로 확대된 것은 삼계교의 보불(普佛)사상의 영향이라고 보인다.<sup>40)</sup>

### 3. 『법화삼매참의』

『법화삼매참의』<sup>41)</sup>는 천태지지가 찬술한 것으로 천태가 와관사에 있을 무렵인 568~575년 사이에 찬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종 완성된 것은 수선사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42)</sup> 『법화삼매참의』는 준식의 감정본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된 본은 강희 6년(1667)에 간행된 증상사판으로 알려져 있다.<sup>43)</sup>

『법화삼매참의』는 참법의 10법 구조로 볼 때 중국불교 참법의 대표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비록 〈자비도량참법〉이 선행(先行)되었지만 논리적 정연성이나 참법의 특성은 『법화삼매참의』가 잘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삼매참의』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법화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삼칠일(21일)간 반행반좌의 갖가지 행법을 닦는 것이다. 제법의 실상의 삼매행을 닦는 이 참법을 지의가 찬술하게 된 배경은 당시 참회류 경전의 번역과 예참의 유행을 언급할 수 있고, 또 스승 헤사로부터 전승받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법화삼매참의』는 『법화경』, 『관보현경』 등 대승경전의 정수가

39) S.59를 저본으로 한 『佛敎의 懺悔思想史』(pp.235~240)를 활용함.

40) 李光濬, 앞의 책, p.244.

41) 『法華三昧懺儀』(『大正藏』 46, 949~955).

42) 聖凱法師, 앞의 책, pp.148~151.

43) 위의 책, p.153.

44) 위의 책, pp.80~89.

되는 뜻을 취하여 법화삼매의 방편과 바르게 수행하는 거동을 제시하고 있다.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에 『관보현경』과 결합하여 이뤄진 이 참법은 『관보현경』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육근참회와 무생참회를 채택하고 있다. 『관보현경』에서 설하고 있는 ‘관심무심(觀心無心)’과 ‘죄복무주(罪福無主)’ 사상은 제법의 이관으로 죄의 자성이 본래 공함을 관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참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 실상에 대해 여러 죄악은 마치 서리와 이슬과 같아 지혜의 달이 죄업을 없앤다고 염하는<sup>45)</sup> 것이다.

현행 『법화삼매참의』는 송대 준식이 감정한 본인데 ‘십과로 행쾌하고 이관을 위주’로 편제하고<sup>46)</sup> 있다. ‘삼칠일 동안 행하는 법화참법 권수(勸修)’와 ‘행법 전의 방편’, ‘삼칠일 동안 도량에 들어와 일심으로 정진하는 방법’, ‘도량에 들어와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 ‘수행하여 증득하는 모습’을 간략히 밝히는 등 5명(明)과 ‘도량에 들어와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열 가지로 나누고 있다. ‘10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행자가 도량을 깨끗이 하는 법, 둘째, 행자가 몸을 깨끗이 하는 법, 셋째, 삼업으로 공양하는 법, 넷째, 삼보를 청하는 방법, 다섯째, 삼보를 찬탄하는 방법, 여섯째, 예불하는 방법, 일곱째, 육근참회를 비롯하여 권청·수회·회향·발원하는 방법, 여덟째 행도하는 법, 아홉째 승경하는 방법, 열째 좌선으로 실상을 바르게 관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 4. 천태지의 소편(所編) 참법

『청관음경』에 의거한 <청관세음참법>은 『국청백록』에 실린 순서<sup>47)</sup>

45)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大正藏』 9, 393中).

46) 『法華三昧懺儀勘定元本序』(『大正藏』 46, 949上).

47) 『國清百錄』(『大正藏』 46, 795中~796上).

장엄도량(莊嚴道場), 작례법(作禮法), 소향산화(燒香散花), 계념수식(繫念數息), 소청(召請), 구양지정수(具楊枝淨水), 송삼주(誦三呪), 피진참회(披陳懺悔), 예배(禮拜), 송경(誦經)과 『마하지관』의 〈청관음행법〉<sup>48)</sup>의 그것에는 ‘구양지정수’가 별도로 시설되어 있지만 협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sup>49)</sup>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참법의 구조로 볼 때 이 참법은 계념수식이 소청을 위해 시설되었고, 송경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상정관으로 이어지는 참의와 차이가 나타난다.

〈방등참법〉은 법증이 번역한 『대방등다라니경』에 의거하여 기초한 참법으로 지의가 창안한 법화참법과 다른데 이전부터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국정백록』에 수록된 〈방등참법〉, 〈방등삼매행법〉이 있는데, 〈방등참법〉은 『마하지관』 권2상의 ‘4종삼매’의 ‘반행반좌삼매의 조’에서 말하는 〈방등참법〉과 같으므로 지의가 찬술한 것으로 보인다.<sup>50)</sup> 북량의 담무참이 번역한 『금광명경』에 기초한 참법인 〈금광명참법〉은 〈청관세음참법〉과 같이 행의의 사상이 설명되고 있다. 준식의 『금광명참법보조의』에 의지해 십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엄정도량, 청정삼업, 향화공양, 소청송주, 찬탄술의, 칭삼보급산쇄, 예경삼보, 수행오회, 선요자귀, 창송금광명전’인데, 〈청관음행법〉과 같이 송경으로 끝나고 있음이 법화참법과 다름을 알 수 있다.

## 5. 율종의 참법

죄업을 참회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율장에 의거하는데, 중국불교 율학을 정립한 도선(596~667) 율사는 『사분율』에 의거하여 육취설을

48) 『摩訶止觀』(『大正藏』46, 14下~15上).

49) 『摩訶止觀』(『大正藏』46, 14下).

50) 李光濬, 앞의 책, p.308.

주장하여 육종의 참법을 구별하기 위하여 제 경론을 인용하여 중국적인 윤색을 가한다.<sup>51)</sup> 도선은 이참·사참과 율참의 5편7취설<sup>52)</sup>을 따르지 않고 육취설을 주장하게 된다. 첫째, 참바라이법으로 바라이(pārājika)죄는 교단 추방의 죄로 교단에 복귀하는 것이나 출가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둘째, 참승잔법으로 바라이죄를 범한 자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여 비구성의 유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승계의 견해를 참회잔법에 적용시킨다. 셋째, 참투란차법인데, 조죄(粗罪)로 번역되며 바라이 다음으로 중한 죄이다. 넷째는 참바일제법인데 부정한 소지품을 버리고 참회해야 하는 사타와 단지 비구들 앞에서 참회하면 출죄가 가능한 단타가 있다. 다섯째는 참제사니법인데 고백해야 할 죄를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는 참돌길라법으로 돌길라는 악작(惡作)으로 일상생활에서 몸과 입으로 범하는 죄로 주의를 환기할 정도의 죄를 참회하는 것이다. 이 같은 참육취법의 제시는 당시의 사회상은 말법이므로 정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계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요청되었으므로 불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한<sup>53)</sup> 도선의 방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6. 화엄종의 예참

종밀(宗密, 780~841)에 의해 『원각경도량수증의』<sup>54)</sup>(간칭 『수증

51) 위의 책, p.246.

52) ① pārājika, 意譯斷頭. ② saṃghāvaśeṣa, 卽僧殘. 僧爲僧伽之略, ③ sthūlātyaya, 意譯大障善道. ④ pāyattika, 或 prāyaścittika, 意譯墮. ⑤ pratidesāniya, 意譯向彼悔. ⑥ 梵 duṣkṛta, 意譯惡作. ⑦ durbhāṣita.

53) 李光濬, 앞의 책, pp.245~254.

54) 『圓覺經道場修證儀』(『卍新纂續藏經』74), 375~512.

의』)가 새롭게 찬집되었는데, 이는 혜각의 『화엄경해인도량참의』와 더불어 화엄종 참법을 대표한다. 『원각경도량수증의』는 18권으로 이뤄져 있고 내용은 (1) 도량법사(제1권), (2) 참회 법문(2~16권), (3) 좌선법(17~18권)의 세 대목으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으며 (2) 참회 법문은 다시 (1)계청, (2)공양, (3)찬탄, (4)예경, (5)참회, (6)잡법사(①권청, ②수회, ③회향, ④발원, ⑤설무상계, ⑥계백, ⑦예참), (7)선요송경, (8)정좌사유'로 조직되어 있다.<sup>55)</sup> 『원각경도량수증의』는 종말이 『원각경』을 바탕으로 해서 징관 등의 화엄사상과 실천방법을 계승하여 천태의 예참과 선관방법을 흡수하여 18권으로 완성한 것으로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중시한 뛰어난 원용의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56)</sup> 『원각경도량수증의』에 이어 송대의 정원(淨源, 1011~1088)은 『수증의』를 간략히 한 『원각경도량약본수증의』와 갑을본의 『화엄보현행원수증의』, 『首楞嚴壇場修證儀』를 간행하여 화엄예참의례를 성립시켰다. 이로 인해 화엄을 종으로 하는 교단의 형성과 확립을 위한 활동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sup>57)</sup>

## 7. 제경예참과 자비수참

당대 지승(智昇)과 선도(善導, 613~681)가 찬한 『집제경예참의集諸經禮懺儀』<sup>58)</sup>는 열 가지 경들과 붓다에게 절을 하면서 참회하는 법을 뽑아 묶은 것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이뤄져 있는데,

55) 이에 대한 설명은 신규탁의 『규봉종말과 법성교학』(올리브그린, 2013, pp.324~341)에 잘 정리되어 있다.

56) 聖凱法師, 앞의 책, p.219.

57) 楊陽, 『華嚴懺法的創建』, 『忻州師範大學學報』, 2012, p.101.; 李光濬, 앞의 책, p.261.

58) 『集諸經禮懺儀』(『大正藏』47, 456~474).

붓다와 교리, 승단을 진심으로 믿고 붓다의 명호를 외우면서 참회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설해지고 있다.

『자비삼매수참(慈悲三昧水懺)<sup>59)</sup>』은 ‘자비도장수참(慈悲道場水懺)’, ‘수참법(水懺法)’, ‘삼매수참(三昧水懺)’ 등으로 불리며 당말(唐末) 고승 지현(知玄, 810~882)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sup>60)</sup> 오달 국사 지현이 누세의 장애로 인해 무릎 아래 인면창이 났는데 뒤에 가락가 존자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암석의 샘물로 씻어 나올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수참>을 지었다고 한다.<sup>61)</sup> <양황참>이 중국불교 현존 최고의 참법이고, <수참>은 송대 이래 십분 유행한 참법으로 현대 불교도들이 망자를 추천하고 재앙을 소멸하며 복을 빌 때 예배하는 것이 이 참법이다. 세 권으로 이뤄진 참법은 번뇌장·업장·과보장의 3종 장애를 참회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 8. 대비참법

중국불교의 참법 가운데 한국불교의 ‘천수신앙’ 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엿보이는 참법은 대비참법인 『천수안대비심주행법』<sup>62)</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참법은 송의 천태종 승려 지례(知禮, 960~1028)가 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십문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첫째, 엄도량(嚴道場)으로 도량을 장엄하는 것이고, 둘째, 정삼업(淨三業)으로 신구의 삼업을 맑히는 것이고, 셋째, 결계(結界)로 도량을 맺는 것이고, 넷째, 수공양(修供養)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다섯째, 청삼보제천

59) 『慈悲三昧水懺』(『大正藏』 45, 967下~967中).

60) 聖凱法師, 앞의 책, p.245.

61) 中國佛教協會編, 앞의 책, p.392.

62) 『千手眼大悲心咒行法』(『大正藏』 46, 973~978).

(請三寶諸天)으로 삼보와 제천을 청하는 것이고, 여섯째, 찬탄신성(讚歎申誠)으로 삼보를 찬탄하는 것을 펼치는 것이고, 일곱째, 작례(作禮)로 예경하는 것이고, 여덟째, 발원지주(發願持咒)로 발원하며 진언을 지니는 것이고, 아홉째, 참회(懺悔)이고 열째는 수관행(修觀行)으로 관행을 닦는 것이다. 『법화삼매참의』의 십문과 유사하지만 『법화경』을 염송하는 것에서 ‘다라니’를 지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대 독체(讀體, 1601~1679)는 천태참법에 의거한 10법 분류를 폐지하여 『천수천안대비심주행법(千手千眼大悲心咒行法)』을 새로 편제한다.<sup>63)</sup> 대비참법은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지게 되지만 한국불교의 대비참법은 의궤들로 구성된 『천수경』으로 20세기에 확립된다.

## 9. 밀종의 참법

아울러 중국불교 참법의 하나로 밀종의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밀교의 독자적인 계율인 삼매야계는 행원보리심, 승의보리심, 삼마디보리심의 세 가지 보리심을 마음의 계로 삼는데, 진언행자가 종교수행을 시작할 때 받는 전법관정의 의식에 앞서 받아야 하는 작법이다. 삼매야(samaya)는 보편성을 의미하며, 평등(平等)·본서(本誓)·제장(除障)·경각(警覺)의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상(佛)과 현실(衆生)이 본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현실의 것으로 하기 위한 실천적인 경과[本誓·除障·警覺]라는 두 가지가 된다. 이와

63) 李光濬, 앞의 책, p.266. ; 이곳의 육향(我若向火湯 火湯自枯竭 我若向地獄 地獄自消滅)을 따라 일부 국내 본에도 교정되어 있지만 『천수다라니경』(대장장 20, 106)의 육향(我若向火湯 火湯自消滅 我若向地獄 地獄自枯竭)에 의거해야 한다. 이성운, 『천수경, 의궤로 읽다』(정우서적, 2011[2015]), pp.104~107.

아울러 밀교에서는 5부 14삼매야, 14지악문(止惡門)을 시설하고 있으며, 오지(五智)<sup>64)</sup>에 의해 5회의 참회를 세우고 있는데, '① 삼업을 청정히 하여 삼보를 공경하고 귀의하는 지심귀명, ② 과거세에 지은 죄업을 마음으로부터 반성하는 지심참회, ③ 모든 유정의 선근공덕을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는 지심수희, ④ 제불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구제해 주도록 진심으로 바라는 지심권청, ⑤ 자신이 닦은 공덕으로 중생을 도우며 함께 무상의 경지에 이르고자 기도하는 지심회향' 이 그것이다.<sup>65)</sup>

## 10. 여타 참법

또 중국불교에서 확인되는 여타 참법에는 선종, 정토교 계통 진언 수지계통, 지장참법 등이 발달하였다. 선종에는 '능엄주' 염송이 발달하였는데,<sup>66)</sup> 현재 중국불교 선종 사찰의 조시과송으로 '능엄주'가 제시되고 있다.<sup>67)</sup> 당대의 가재(迦才)나 선도(善導, 613~681)의 참회론이 언급되고 있으며, 1213년 금나라 왕자성에 의해 『예념미타도량참법』을 편찬하고 있다. 이 참법은 <왕생전록>이라고 왕생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등 이전의 참법과 그 형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라니를 지니고 있는 경전을 바탕으로 한 죄업의 참회법이 있

64) ①法界體性智(dharma-dhātu-svabhāva-jñāna), 配列於中央大日如來與佛部. ②大圓鏡智(ādarśa-jñāna), 配列於東方阿閼如來與金剛部. 又作金剛智. ③平等性智(samatā-jñāna), 配列於南方寶生如來與寶部. 又作灌頂智. ④妙觀察智(梵 pratyavekṣaṇā-jñāna), 配列於西方阿彌陀佛與蓮華部. 又作蓮華智. 轉法輪智. ⑤成所作智(梵 kṛtyānuṣṭhāna-jñāna), 配列於北方不空成就佛與羯磨部. 又作羯磨智.

65) 李光濬, 앞의 책, pp.267~269.

66) 『禪門日誦』.

67) 承天禪寺, 『早晚課誦本』; 『佛門必備課誦本』.

다. 가령 인도 출신 학승 시호가 980년에 번역한 『불설지광멸일체업장타라니경(佛說智光滅一切業障陀羅尼經)』에 실린 다라니를 지송한 참회법이 있다.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붓다가 멸도한 후 정법이 소멸된 때에 오역죄를 지어 아비지옥에 떨어질 중죄를 지었더라도 이 다라니를 만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용맹하고 굳건하게 21일 동안 밤낮으로 여섯 번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다라니의 글귀를 염송하고 지성으로 참회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사람의 죄업은 모두 소멸되어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sup>68)</sup>

또 『대승대비장십륜경』, 『지장보살본원경』, 『점찰선악업보경』의 지장삼부경 소재한 참회품에 의거한 참회법이 설해지고 있는 지장참법 7부가 전해지고 있다. 돈황사본권 중의 『찬례지장보살참원법(讚禮地藏菩薩懺願法)』과 명대 지옥(智旭, 1599~1655)이 찬한 『점찰선악업보경행법』과 『찬례지장보살참원의(讚禮地藏菩薩懺願儀)』, 청대 찬자 미상의 『자비지장참법(慈悲地藏懺法)』과 승계에 의해 찬해진 『지장보살본원참의(地藏菩薩本願懺儀)』 등이 있다.<sup>69)</sup> 『자비지장참법(慈悲地藏懺法)』<sup>70)</sup>은 음습·탐습·만습·진습·사습 등을 참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11. 명대 이후의 참법

“명대 이후 참법이 널리 유행하여 참법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승려의 주된 업무가 되었다. 승려는 세속의 요청에 부응하여 불사를 하였으므로 ‘응부승(應赴僧)’이라 한다. 이러한 승려들은 ‘유가삼밀행법

68) 『佛說智光滅一切業障陀羅尼經』(『大正藏』 21, 915中).

69) 韓成才, 「地藏懺法研究現狀及問題」, 『蘭台世界』, 2016, p.124.

70) 『慈悲地藏懺法』(『卍新纂續藏經』 74, 587中~598中).

(瑜伽三密行法)을 행하므로, ‘유가교승(瑜伽敎僧)’ 약칭으로 ‘교승(敎僧)’이라 하였다. 홍무15년(1382) 불사를 제정하여 선(禪)·강(講)·교(敎) 3종(宗) 제도로 만들었다. 아울러 남경(南京) 능인사(能仁寺)에서 응공도량(應供道場)을 개설하여, 경성(京城) 안팎의 대소 응부사원 승려들을 모아 학습하고, 일정한 불사과의(佛事科儀)를 만들어 홍무16년(1383) 승록사에 반포간행을 맡게 했다.”<sup>71)</sup>라고 할 정도로 중국불교에 참법이 성행하였으며, 14세기 후반 이후에는 국가에 의해 종파가 선종과 교종, 의식을 행하는 유가종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신찬속장경』에는 <자비도량참법>과 시원을 같이하는 수록재의궤를 예참부에 배속하고 있는데, 명말(明末)의 운서주굉(雲棲祿宏)이 참법을 자세하게 짓고, 『수륙도장의궤(水陸道場儀軌)』를 거듭 교정하였으며, 『유가집요시식단의(瑜伽集要施食壇儀)』(이명 「瑜伽集要施食儀軌」)를 수정하였다. 아울러 「시식보주(施食補注, 즉 근대에 유행한 「수륙」과 「염구」)를 찬술하여, 허다한 참법이 출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sup>72)</sup>

#### IV. 결어(結語)

불교 전통의 계목에 의지하는 포살이나 대중계 잘못을 드러내는 자 방식에서 ‘참법’이라는 독특한 방식이 중국불교에서 발달하였다. 중국불교의 특징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중국불교에서 참법이 발달하게 된 배경은 유가나 도교의 문화와 상호 교섭하며 ‘예’의 중시, 귀신

71) 中國佛教協會編, 앞의 책, p.391.

72) 위의 책, p.391.

관념, 효도사상, 국가관념 등과 같은 중국의 관념이 흡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불교 참법은 진대에서 기원해 남북조의 제·양(齊梁)시대에 점차 성행하다가, 수·당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중국불교에 참법이 수용된 것은 종교의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덕을 역설하는 경전의 출현, 주술적 경전의 전역에 의해 의식 수법의 형태로 참법이 발달하였는데, 치병제재(治病除災) 등 현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의 경전이 많고, 그 방법으로 주송·예찬·참회 등이 있다. <청관음참법>, <금광명참법>, <방등참법> 및 『국청백록』의 <방등삼매참법>, <법화삼매참의> 등이 그것이다.

참법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참문이 중심이었지만 점차 불명에 예를 표하는 참법이 등장하는데, 불명을 독송함으로써 어려움과 환난, 병을 없애거나 갖가지 공덕을 얻고자 한 것이다. 불명의 지송과 더불어 중국불교 주요 참법에 등장하는 참회·권청·수회·회향·발원의 오회(五悔)가 성립된 것은 천태의 『마하지관』과 『법화삼매참의』에 이르러서이다.

‘불전에서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몸과 입으로 지은 죄를 한 가지씩 법에 의해 소멸해 나가는 것’인 작법참(作法懺)을 비롯하여 취상참과 무생참의 참법이 발달하였다.

『대정신수대장경』과 『만신찬속장경』에는 50여 종에는 이르는 중국불교의 참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양무제의 『자비도량참법』을 필두로 신행선사의 <칠계예참>, 천태지자의 『법화삼매참의』, <청관세음참법>, <방등참법>, <금광명참법>이 등장하여 참법의 전성시대를 열기 시작한다. 『법화삼매참의』의 행법은 첫째, 행자가 도량을 깨끗이 하는 법, 둘째, 행자가 몸을 깨끗이 하는 법, 셋째, 삼업으로 공양하는 법, 넷째, 삼보를 청하는 방법, 다섯째, 삼보를 찬탄하는 방법, 여섯째, 예불하는 방법, 일곱째 육근참회를 비롯하여 권청·수회·회향·발원하는 방

법, 여덟째, 행도하는 법, 아홉째, 숭경하는 방법, 열째, 좌선으로 실상을 바르게 관하는 방법의 10법으로 구성되었다. 10법은 여타 참법의 구조의 준거가 되기도 하며, 각 참법의 사상적 특징을 보여준다.

당의 종밀과 송의 정원이 『원각경도량수증의』·『화엄보현행원수증의』 등을 편찬, 보급한 것은 화엄을 종으로 하는 교단의 형성과 확립을 위한 활동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지현의 『자비삼매수참(慈悲三昧水懺)』은 번뇌장·업장·과보장의 3종 장애를 참회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송대 이래 유행한 참법이다. 대비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례의 『천수안대비심주행법』은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대비주참법이 유행하게 하였다.

기타 밀종의 참법, 다라니의 지송하는 참법, 지장신앙에 의한 지장 참법, 능엄주를 염송하는 선가의 참법, 정토종의 ‘참회론’과 송대에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이 발달하여 한국에까지 보급되었다.

명대 이후 참법은 승려의 주된 업무가 되었고, 국가 정책에 의해 제종이 선과 강, 교의 삼종제도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결국 중국불교의 참법은 자종의 종지 아래 참회를 하며 수행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大正藏』: 『大正新修大藏經』  
『卍新纂續藏經』
-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大正藏』 9)  
『佛說智光滅一切業障陀羅尼經』(『大正藏』 21)  
『大智度論』(『大正藏』 25)  
『慈悲三昧水懺』(『大正藏』 45)  
『摩訶止觀』(『大正藏』 46)  
『法華三昧懺儀』(『大正藏』 46)  
『法華三昧懺儀勘定元本序』(『大正藏』 46)  
『國清百錄』(『大正藏』 46)  
『千手眼大悲心咒行法』(『大正藏』 46)  
『往生禮讚偈』(『大正藏』 47)  
『集諸經禮懺儀』(『大정藏』 47)  
『歷代三寶記』(『大正藏』 49)  
『高僧傳』(『大正藏』 50)  
『廣弘明集』卷28(『大正藏』 52)  
『圓覺經道場修證儀』(『卍新纂續藏經』 74)  
『圓覺經道場略本修證儀』卷1(『卍新纂續藏經』 74)  
『慈悲地藏懺法』(『卍新纂續藏經』 74)

德田明本, 『律宗概論』, 百花苑, 昭和44.

聖凱法師, 『中國佛教懺法研究』,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4.

신규덕, 『규봉종밀과 법성교학』, 서울: 올리브그린, 2013.

呂芳芳, 『智顛懺法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劉亞明, 『中國漢傳佛教懺悔思想研究』, 四川大學宗教學博士學位論文, 2005.

楊陽, 『華嚴懺法的創建』, 『忻州師範大學學報』, 2012.

劉永增·陳菊霞, 『莫高窟第98窟是一懺法道場』, 『敦煌研究』 6, 2012.

李光濬 著, 『佛教의 懺悔思想史』, 서울: 우리출판사, 2006.

이성운, 『천수경, 의궤로 읽다』, 서울: 정우서적, 2011[2015].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2, 上海: 知識出版社, 1982[1989].

陳佳政, 『懺法, 慈悲與佛教中國化—以《梁皇懺》爲中心』,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韓成才, 「地藏懺法研究現狀及問題」, 『蘭台世界』, 2016.

橫超慧日, 『中國佛教の研究』, 法藏館, 1958.

(Abstract)

## A Brief Review of the Ritual of Penitence in Chinese Buddhism

Lee, Sung-Woon

Research Professor,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Since Buddhism introduction to China, the ritual of penitence (懺法) by reading the sūtra has developed. This writing considers how it was accepted and has developed in Chinese Buddhism. The background from which it developed in Chinese Buddhism can be said that Buddhism accepted Chinese ideas such as emphasis on ‘courtesy’, ghost, filial duty and nation through cultural cross-fertilization with Confucianism and Taoism.

Letter of penitence (懺文) was central to the early stage of formation of the ritual of penitence but it appeared gradually the way of worshipping Buddha's name, which has the purpose of overcoming hardship, misfortune and disease and of gaining virtue by reciting Buddha's name. Starting with Cibeidochang chanfa (『慈悲道場懺法』), Seven stages for worship and repentance (七階禮懺) by Xinxing and Fahua sanmei chan yi (『法華三昧懺儀』) · the Ritual of penitence with Avalokitesvara · the Ritual of penitence with vipulya (方等懺法) · the Ritual of penitence with Mahāvairocana (金光明懺法) by Tiantai Zhi-yi (天台智顓) allowed golden age of the ritual of penitence to begin.

Afterwards, Zong mi (宗密) created Yuan jue jing daochang xiu zhuo zheng yi (『圓覺經道場修證儀』), Hua yanpuian xing yuan xiu zheng yi (『華嚴普賢行願修證儀』), Cibeisanmei shui chan (『慈

悲三昧水懺), Quan shouyan dabeixin zhouxingfa (『千手眼大悲心呪行法』) and Li nian mituo dao chang changfa (『禮念彌陀道場懺法』). Like this, each Buddhist sect created its own manual for the ritual of penitence and practiced it. About when Zhi-yi wrote Mohe zhi gu an (『摩訶止觀』) and Fahua sanmei chanyi, five repentance (五悔) was established such as penitence · invitation · joyful acceptance for other's luck · retuning one's merit to others · vow which are the terms of the main ritual of penitence. Method of practicing are made up of ten stages from firstly cleaning practice hall to tenthly observing the reality rightly in seating meditation.

Key Words: the ritual of penitence (懺法),  
Fahua sanmei chan yi (『法華三昧懺儀』),  
five repentance (五悔), Tiantai Zhi-yi (天台智顛),  
Zong mi (宗密)